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3 Summer Vol.33



In Schaeffler

06

미래의 가치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빠른 지름길, 혁신

16

체험 1박 2일
안산공장 공정기술팀 래프팅 체험
하나들, 하나들 거친 물살을 가르며



For Life

20

세플러 애정촌
청정자연과 함께하는
싱그러운 에코여행

30

힐링 가족 캠핑
캠핑없는 못살아
캠핑마니아의 여름나는 법



To Communicate

40

생생정보
4.1 부동산 대책,
이는 만큼 보인다

42

따뜻한 시선
세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활동

발행일 2013년 7월 15일(통권 제33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범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인쇄 은성프린팅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플러+원

표지이야기

이번 '체험 1박 2일'에서는
 안산공장의 공정기술팀 직원들이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서
 래프팅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에서 다져온
 팀워크를 거친 물위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04

Cover Story
 삶은 당신의
 선택들이 모여
 만든 결과다
 <알베르 카뮈>

In
 Schaeffler

06

미래의 가치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빠른 지름길, 혁신

08

세플러를 찾아서
 약조건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세플러의 내구성

32

꽃중년 프로젝트
 어머! 이 선글라스
 나한테 딱이야

34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물 위를
 달리는 사나이들



36

남편의 자격
 결혼기념일도
 모르는 남편,
 무심해도 너무 무심해



12

원더풀 베어링
 전기 자전거의 핵심 부품
 센서 바텀 브래킷
 (Sensor Bottom Bracket)

14

나의 S 다이어리
 세플러의
 에너지저장이 떴다



38

생생정보
 4.1 부동산 대책,
 아는 만큼 보인다

To
 Communicate

42

따뜻한 시선
 세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활동



16

체험 1박 2일
 하나둘, 하나둘 거친
 물살을 가르며



20

세플러 애정촌
 청정자연과 함께하는
 싱그러운 에코여행

44

새로운 시선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48

세플러 스페셜
 창원공장
 어버이날맞이 효도관광



24

세플러인 탐구생활
 '내 생애
 최고의 여름휴가'

26

Happy Birthday
 세플러인이여!
 휴련을 날려라~

For
 Life

30

힐링 가족 캠핑
 캠핑없이 못살아
 캠핑마니아의 여름나는 법

50

Schaeffler Focus
 1. 2013년도
 경영설명회 개최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 개편 프로젝트

56

세플러, 나의 인생을 걸다
 변화와 성장을
 좇던 것들이
 다시 사람을 향합니다

58

Schaeffler Hotline

59

나도 기자다
 <세플러+원>
 전주공장 신입 사보
 주재기자료를 소개합니다



이 한장의 엽서

“삶은 당신의 선택들이 모여 만든 결과다”

〈알베르 카뮈〉

“Life is a sum of all your choices”

〈Albert Camus〉



CFO, Mr. Andersson Johan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의식,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선택 과정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모든 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데서 오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한가지 선택은 '맞닥뜨린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 선택은 '그 상황을 바꿔나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Your life is the sum result of all your choices you make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f you can control the process of choosing, you can take control of all aspects of your life. You can find the freedom that comes from being in charge of yourself.

Remember that there are only two primary choices in life; to accept conditions as they exist, or accept the responsibility for changing them. Nobody ever did, or ever will, escape the consequences of his choices.

The strongest principle of growth lies in human choice.

누구나 품을수 있는 열정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고 사용한 단어중에 하나가 열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신입사원때는 남의 입을 통해 내 귀로 많이 듣는 단어였고, 지금은 내 입을 통해 남의 귀에 박히게 하려고, 아니 그걸 넘어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아니 우리는 왜 열정을 말하고 품어야 하는 것일까? 열정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든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이다. 또한 열정은 무뎠던 삶을 활기찬 삶으로 바꾸고,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바꾼다.

힘만 가지고 또는 지식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열정을 품었다고 할수는 없다.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합쳐져서 다 같이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그 마음이 진정한 열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플러인을 저마다 각자 다른 환경과 세대가 다를지언정 우리 세플러인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열정만은 하나가 아닐까? 최근들어 100ppm을 넘어 무결점을 요구하는 고객, 다양한 제품, 높은 기술력이 기반되는 제품을 개발해 가며 품질이라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도 우리 세플러인들의 합쳐진 열정으로 그 난관은 힘없이 무너질거라는 예상을 해본다.

힘겨리를 명백하고 구름을 편다고 청천으로 돌아갈수 있을까? 종은날까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았다면 평생 청천으로 살았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열정!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2013년 5월의 마지막날

전주공장 운영실장 최승범



Innovation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빠른 지름길, 혁신



기존의 틀을 깨는 바로 그것

흔히들 사과 하면 영주 사과나 대구 사과 같은 산지를 떠올린다. 그런데 이렇게 산지 이름보다는 ‘파파사과’라는 브랜드로 더 알려진 사과가 있다. ‘파머스 파티(Farmers party)’라고 불리는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에서 팔리는 사과 이름이다. 예쁜 디자인과 로고가 새겨진 팬시한 박스에 들어있는 사과는 어딘지 해외의 유명 브랜드를 연상시킨다.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통통 튼다. ‘100% SORRY with FARMERS PARTY’라고 적힌 슬로건에 스타워즈의 다스베이어 가면을 쓴 사내가 사과를 내밀고 있는 이벤트 포스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파머스 파티가 대신 달콤한 사과를 드리러 간다’는 내용의 문구들이 적혀 있다. 또 한 포스터에는 다스베이어의 그 유명한 대사 ‘I’m your father’을 패러디한 ‘I’m your farmer’ 라는 재기발랄한 문구도 보인다. 사과가 나오는 계절에는 단박에 완판이 된다는 ‘파파사과’. 이 정도면 웬만큼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인 셈이다. 그런데 왜 ‘파머스 파티’는 우리가 그저 별 이미지 없이 먹던 사과에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을까.

혁신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혁신은 필요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은 서울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하다 귀농해 봉화농원을 차린 농부 이봉진 씨다. 그는 사과와 머루를 재배해 팔았는데 그 유통과정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느꼈다고 한다. 힘들게 고생한 농부들의 농산물이 중간 유통상들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가 사과를 포장해 팔기 위해 디자인을 의뢰하러 ‘액션서울’이라

는 디자이너 스튜디오의 이장섭 씨를 만나면서 ‘파머스 파티’가 탄생했다. 마침 공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생각 중이던 이장섭 씨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아예 브랜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던 것. ‘파머스 파티’는 사과에 머물지 않고 다른 농산물들도 브랜드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 이 작게 보이는 일에는 몇 가지 커다란 혁신이 돋보인다. 첫째, 한 농부의 생산품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농산물의 브랜드가 산지만이 아니라 독특한 자체 브랜드로도 성공가능하다는 것. 셋째, 직거래로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유통할 수 있었던 파머스 파티처럼 좋은 브랜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감대를 통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농부 이봉진 씨나 디자이너 이장섭 씨가 아무도 내딛지 않은 혁신의 길에는 달콤한 열매가 달려 있었던 셈이다. 혁신이란 이처럼 무언가 거대한 것을 연상시키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하더라도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혁신의 가능성을 믿는 힘

또 한 가지 혁신의 사례가 있다. 우리에게 사진의 대중화를 가져왔던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만의 이야기다. 당시 사진 기술은 개발되었지만 그 불편한 습식 방식 때문에 대중화되기 어려웠던 사진을 그는 건판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진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당시 감광판 재료였던 유리 대신 니트로셀룰로오스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보관도 쉽고 한 롤에 여러 장을 찍을 수 있게 해 사진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또한 그는 사진의 복잡한 현상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코닥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코닥 시스템’이란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당시 코닥의 전설적인 광고 문구처럼 소비자가 100장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25달러에 사서 찍은 후 본사로 보내면 사진을 현상해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10달러만 내면 새 필름으로 교체 해주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사진문화를 선도했던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진의 소비자를 일부 전문가에서 일반인으로 넓힐 수 있었던 이스트만은 어떻게 이런 끝없는 혁신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불편함을 오히려 혁신의 기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카메라는 복잡하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대중화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 이스트만은 “사람들은 일상을 기록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나의 욕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상력뿐이다”라는 유명한 말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 단정하거나 어떤 한계를 정하는 태도를 경계했다고 한다.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그 비전을 이루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혁신의 준비가 된 셈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혁신의 길은 때로는
문제를 가장 빨리 풀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혁신은 어떤 현재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 불편함 등에서 오히려 탄생한다. 즉 이를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자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한계를 짓는 태도로는 아무런 혁신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니 확고한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혁신의 준비가 된 셈이다. 남은 것은 그 창조적인 열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집중시키는냐는 것일 게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혁신의 길은 때로는 문제를 가장 빨리 풀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세플러를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만나다

악조건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세플러의 내구성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생산팀 오혜성 사원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은 세플러코리아 창원공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이웃사촌으로, 이곳은 중공업 산업분야에 필요한 대형 기계설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첨단기술로 세계 중공업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업체이다. 주요 기계 설비를 만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베어링은 필수, 이곳에서도 역시 중요 생산품에 세플러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중공업 산업의 핵심, 회전기와 산업기계설비

중공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효성중공업은 전력, 기전, 효성굿스프링스 등 3개의 퍼포먼스 유니트(PU)와 풍력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창원3공장은 기전 퍼포먼스 유니트를 담당하고 있다. 중공업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전 분야인데, 회전기를 비롯한 주요 산업기계설비가 튼튼한 바탕이 되어야 그 밖의 기계설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회전기 분야의 대표 기계라 할 수 있는 전동기(Electric Motor) 제품은 저압 중소형 전동기에서부터 고압 대형 전동기까지 KS, IEC, NEMA, GOST*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전기종의 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세플러의 베어링이 적용되고 있다.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의 국가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위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 기술에 관한 표준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목적으로 1906년에 설립된 '국제전기표준회의'를 이룬다.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1926년, 미국 및 캐나다의 전기메이커를 회원으로 설립되어 제조업자와 구입자간의 오해를 배제하고 용도에 따른 제품의 선택과 구입의 지침이 되는 규격을 제정한다.
GOST(GOSSTANDART)
 러시아연방표준위원회의 약자로 러시아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상품(제품, 용역)에 대하여 자국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의 표준, 규격 및 시험항목, 시험조건, 시험방법 및 결과의 판정기준 등을 제정한다.

HYOSUNG Power & Industrial Systems Performance Group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효성중공업 퍼포먼스그룹(PG)은 전세계 중공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술을 통해 전력기기와 산업기자재(회전기, 산업기계설비), 펌프, 풍력발전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이다. 또한 창원3공장이 소속된 기전 퍼포먼스 유니트(PU)는 전동기, 발전기, 기어 화확장치 등 혁신적인 신기술개발을 통하여 초일류 종합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전동기 분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력, 화력, 원자력, 선박용, 광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목적용 사용 가능한 다양한 전동기 제작으로 어떠한 장소와 목적에도 최적화된 전동기 공급이 가능하다.

www.hyosungpni.co.kr

세플러의 눈으로 효성을 보다

효성중공업의 중심 기전 퍼포먼스 유니트, 그중 핵심인 전동기 제작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나선 이는 바로 우리회사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생산팀의 오혜성 사원이다. 입사 7년차인 오혜성 사원은 현장에서 직접 베어링 생산 공정을 맡고 있는 만큼, 실제로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물론 자신이 만드는 제품과는 사양과 규격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세플러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다른 생산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그의 눈길과 발길을 바쁘게 만들었다. 이번 견학은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전동기기술개발팀 신문환 차장의 안내에 따라 전동기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둘러볼 수 있었다.



포장된 세플러제품을 살펴보는 오혜성 사원과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고압제작팀 특수기반 이희식 사원

메모는 기본이고, 그냥 넘어갈 법한 사소한 것도 꼼꼼히 질문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세플러의 제품도 양해를 얻어 뜯어보고 살펴본다.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은 전체 부지가 여타 공장들에 비해 넓었는데 그중 전동기 생산 공정만해도 꽤나 큰 면적을 활용하고 있었다. 중소형 제품은 물론 대형 제품까지 한 곳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필요로 하고 제품의 크기도 만만치 않기에 큰 면적임에도 적절한 공간 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제작 공정을 둘러보던 중 손쉽게 우리 제품을 여기저기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세플러의 제품이 많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보다 꼼꼼히, 효성에게 세플러를 묻다

전동기 제작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설명은 고압제작팀 특수기반 이희식 사원이 안내를 맡아주었다. 때마침 고압 대형 전동기를 제작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고압 대형 전동기의 경우 고압, 고속의 힘을 회전체에 제대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베어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업체의 베어링 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세플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단연 효율적이라고 한다. 특히 해외 수출 시에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격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과 높은 신뢰성을 지닌 세플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일련의 제작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집중력을 높여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을 요량으로 눈과 귀를 바빠 움직이는 오혜성 사원. 메모는 기본이고, 그냥 넘어갈 법한 사소한 것도 꼼꼼히 질문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세플러의 제품도 양해를 얻어 뜯어보고 살펴본다. 역시 생산현장에서 다년간 쌓인 내공은 감출 수 없는 듯하다.

Interview +one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생산팀 **오혜성** 사원



저희 사업장과 가까워 늘 지나다 니며 보던 효성중공업이었는데, 이런 기회를 얻어 이번에 효성중공업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드는 제품이 어떻게 적용되고,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게, 보다 강력한 힘을 전달하기 위해

효성이 만들어 내는 전동기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만큼 그 제품도 다양했다. 발전, 건설 분야는 물론 조선, 선박, 수처리 시설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작, 조립 과정을 거쳐 도색, 포장을 통해 완제품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특히 오혜성 사원의 눈길을 사로잡은 조립과정에서 세플러의 베어링이 전동기 내부에 삽입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기반 이희식 사원은 베어링 조립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오혜성 사원에게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내기 위해서 베어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베어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동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전동기에는 핵심부품으로 베어링이 삽입된다고 하니 직접 베어링을 만들어내는 오혜성 사원의 감회가 남다를 만했다.



효성중공업의 전동기 생산공정 전반을 둘러보는 오혜성 사원. 고압 대형 전동기의 경우 고압, 고속의 힘을 회전체에 제대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난 세플러의 제품이 꼭 필요하다.

비록 짧은 시간에 효성중공업의 일부분만을 살펴보았지만, 오혜성 사원은 자신의 손길이 만들어낸 제품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뿌듯한 듯하다. 결국 자부심이란 상대방의 신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전기자전거의 핵심 부품 센서 바텀 브래킷 (Sensor Bottom Bracket)

올해도 아웃도어 열풍은 계속될 듯하다.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의 인기가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에도 세플러의 기술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로 전기 자전거를 탈 때, 사용자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이 그것이다.

일반자전거 vs 전기자전거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일반자전거는 몸체와 바퀴, 페달, 핸들, 안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00%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전거다. 그럼 전기자전거가 동력을 얻는 방식은 어떤 원리일까. 전기의 힘으로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소모하는 힘을 줄여주는 전기자전거가 전기를 발생시키고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나 모터 등 추가 부품이 자전거에 장착되어야 한다. 이때 그 중의 한 부품이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이다.

인간의 신경 같은 존재,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

전기자전거는 두 가지로 나뉘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E-Bike이고 다른 하나는 Pedelec이다. E-Bike는 순수 전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를 표현하고 페달(Pedal)과 전기(Electricity)의 합성어인 페들렉(Pedelec)은 인력과 전기력, 두 가지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나타낸다. 이때 페들렉(Pedelec)에는 반드시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페들렉(Pedelec)은 사람의 힘과 전기의 힘,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하는 자전거로 상황에 따라 동력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페들렉(Pedelec)을 타고 출발했다고 하자. 출발하면서 도착할 때까지는 평탄한 길도 있고 경사가 심한 길도 나오게 마련이다. 평탄한 길을 달릴 때는 전기의 힘은 거의 필요 없으므로 순수 사람이 페달을 돌리는 힘만으로도 무난히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사진 도로가 나온다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만으로는 속도를 유지하기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 단면모습

힘들어진다. 이때 자동으로 전기의 힘이 발생하여 페달을 밟는 사람의 에너지를 줄여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전거가 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르막 길임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전기를 발생시킬까? 이때가 바로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다.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은 BB-RS, BB-RTS, BB-RTTS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바뀌는 힘과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컨트롤러(Controller)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Controller :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모터에 전달해 주는 장치) 측정값을 받은 컨트롤러(Controller)는 그 값에 따라 전기량을 조절하고 모터에게 전기를 공급하여 동력을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적은 힘으로도 오르막 길을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신경으로 느끼고 뇌로 생각하며 몸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신경에 해당된다. 그만큼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은 페들렉(Pedelec)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이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부품

현재 유럽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인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인 전기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만 수요가 높은 전기자전거가 수 년, 수십 년 뒤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도 그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부품으로써 세플러 그룹의 큰 수익원이 될 것이다.



전기자전거에 설치된 센서 바텀 브래킷(Sensor Bottom Bracket) 및 주요부품



세플러의 에너지이저가 떴다

안산공장 생산팀 방지훈 세터

서른 다섯 젊은 나이에 벌써 입사 10년차라는 방지훈 세터. TSTM(기계식 태핏)의 바닥면 연삭과 폴리싱 업무를 맡고 있는 그는 생산팀의 젊은 에너지이저로 통한다. 세플러의 젊은 태양을 자처한 그의 하루를 서둘러 따라가보자.



AM 6:00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방지훈 세터는 전날 생산 실적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한 뒤 원인을 분석, 정리하고 오늘 생산할 제품을 장비 별로 계획을 세운다. 그는 현재 5가지 형번 태핏을 13대의 장비를 운영하여 셋팅 및 생산활동 업무를 하고 있는데 라인운영에 있어 13대의 모든 장비가 생산효율과 품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개선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PM 2:00

같은 형번이라도 그룹의 종류가 40여 가지나 되고, 고객이 요구하는 그룹을 정확하고 빠르게 생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장비의 셋업이 중요하다. 그만큼 장비의 사이클 타임과 셋업타임의 단축이 관건이라는 방지훈 세터. 그의 노력 덕분에 안산공장에서는 최초로 셋업타임 60분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AM 4:00

새벽 4시, 방지훈 세터는 눈을 뜨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 좋은 날씨인지 확인한 후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이것저것 복장을 갖춘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왕복 24km의 거리. 처음에는 아이에게 아빠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타기 시작한 자전거지만 지금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 삼아 타고 있다. 그는 '자출사(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라는 동호회에서 산악 및 도로를 라이딩하는 모임도 갖고 있다.



그는 뒤돌아 생각해 보면 늘 버팀목이 되어준 동기들과 가족들이 있었기에 한걸음 한걸음 걸어올 수 있었다. 수십년을 세플러에 몸부처 일한 선배들에 비하면 더욱 노력해야 할 것들 투성이지만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뚜렷한 목표로 세플러의 일원이 되고 있는 방지훈 세터.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품질향상과 모든 설비의 셋업타임을 10분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나갈 그의 내일이 기대된다.

안산공장 공정기술팀 래프팅 체험 하나둘, 하나둘 거친 물살을 가르며



봄이 다 가기도 전에
날씨가 폭폭 찌더니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막강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듯하다.
이런 날씨에는 절로 몸이 처지고
의욕도 상실하기 쉽지만
한시도 제자리걸음을 할 수 없는
세플러인들은 오늘도 바빠 움직인다.
그중에서도 외유내강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안산공장의 공정기술팀이
거친 물살에서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짜릿한 한 여름의 래프팅

강원도의 젓줄이자 국내 제1의 래프팅 코스로 알려진 내린천. 깎아 내린 듯한 절벽과 푸른 물줄기가 강원도 인제의 8경임을 자랑하고 있는 이곳에 안산공장 공정기술팀이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모였다. 그도 그럴 것이 리더의 구령에 맞춰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하는 래프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팀워크. 전날 미리 1박을 하며 파이팅을 외쳤지만 팀의 결속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미션인지라 살짝 부담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평소 팀 내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며 축구, 농구, 탁구 등을 통해 팀원들 간의 결속력을 단단히 다져왔다는 공정기술팀. 외유내강의 팀답게 팀워크가 뭉치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서로의 눈을 맞춘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구령에 맞춰 준비운동을 한 후 안전수칙을 되새기며 드디어 노를 잡았다. 아직은 여유있는 표정으로 천천히 노를 저어보는 공정기술팀이다. 하지만 이내 곧 만난 급류에 진지한 표정으로 바뀐다. "한번 부딪혀보자!" 점점 물살을 가르며 소리가 커지고 다소 긴장한 표정도 드러난다. 하나둘 하나둘 구령에 맞춰 본격적으로 노를 저기 시작한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은 듯하다. 좁은 보트 안에서 서로의 노가 자꾸만 부딪히고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물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니 동작이 작아진다. 또 마음이 급해 혼자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날 동안 팀원들과 마음을 맞춰온 공정기술팀은 내가 아닌 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트가 무거워 돌부리에 걸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일어서야 하고, 팀원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노를 저으려면 옆의 동료도 구령이 잘 들리도록 내가 더 크게 외쳐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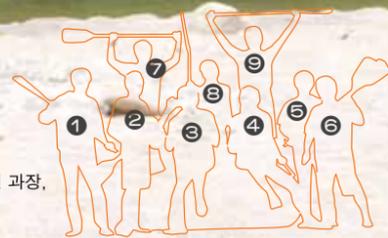


Interview +one
안산공장 공정기술팀 이준백 팀장



처음에는 업무에서처럼 마음을 잘 맞춰 안전하게 보트를 탈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역시 공정기술팀답게 서로 간의 협력과 팀워크를 발휘해 무사히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업무에 지쳐있는 팀원들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이번 래프팅 체험을 통해 서로의 돈독한 동료애를 확인했고 기분전환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① 조정훈 차장, ② 이재상 과장, ③ 이준백 팀장, ④ 안상철 사원, ⑤ 정종현 과장, ⑥ 김태현 과장, ⑦ 송동혁 사원, ⑧ 이기수 대리, ⑨ 박진열 사원



바위 틈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는 안상철 사원

청량한 쪽빛 물속에 과감히 몸을 던지는 김태현 과장



업무에서 더욱 빛나는 팀워크

공정기술팀의 팀워크는 본업에서 더욱 빛난다. 현재 공정기술팀은 공정별 공정 능력을 분석해 설비를 증설하고 개선하며 공장의 원활한 생산에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안산공장 이전에 따른 설비 투자와 신규 공정 기술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느라 하루가 모자르다고. 그럴 때 일수록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이준백 팀장. 그가 이끄는 공정기술팀은 작업자를 배려하는 공정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 여정에서는 항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팀원들과 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

세플러의 미래를 향해 노를 저어라

업무에서 빛나는 팀워크를 물 위에서도 멋지게 발휘한 공정기술팀은 고된 업무는 잠시 내려놓고 모처럼의 짜릿한 여름 야유회를 즐겼다. 청량한 쪽빛 물속에 과감히 몸을 던지기도 하고 바위틈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서로 장난도 친다.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한껏 웃어보는 것이 얼마만이던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툭툭 털고 내일로 복귀할 그들이 오늘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하나'가 아닌 '우리'였을 때 거친 물살을 가를 수 있다는 것. 더불어 공정기술팀은 안산공장이 새로운 첨단기술과 함께 효율성 높은 신규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차게 노를 저을 것을 약속했다.



래프팅 중간에 보트를 뒤집어 시원하게 미끄러움을 타는 이기수 대리

청정자연과 함께하는 싱그러운 에코여행

자연이 만든 초록나라 순천만

22.6km²의 갯벌, 5.4km²의 갈대 군락지, 220여 종의 철새, 갯벌에서 살아가는 120여 종의 식물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물창고' 순천만.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연안습지 중 하나로 이곳의 갯벌은 국내 최초로 람사르(Ramsar Convention)협약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그야말로 자연의 선물이다. 바로 이곳에 대한민국 최초로 정원 축제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이란 주제로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에코랜드에서 만난 에코커플

평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고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휴대하는 등 생활 속 환경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네 사람. 그래서인지 오늘의 에코여행이 더욱 설레는 눈치다. 먼저 첫 번째 커플인 연구소 제품기술팀의 최승호 연구원과 안산공장 공장운영실 기획파트의 이수미 과장이 입구에 들어선다. 그러더니 곧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최승호 연구원과 이수미 과장. 꼭 텔레토비들이 가장 아장 걸어 다닐 것 같은 동산이 펼쳐지고 초록빛 나무와 오색빛 꽃들이 인사를 건네는 듯한 풍경에 절로 미소 지어진다.

베어링의 원활한 생산과 판매를 위해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미 과장은 세플러와 13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다. 처음 파트타임으로 세플러와 맺은 인연으로 지금껏 맡은 역할을 다해온 이수미 과장. 결품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일이 많아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순간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다하지 못한다. 이수미 과장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최승호 연구원은 연구소 제품기술팀에서 시험 완료품에 대한 고품 분석과 경쟁사의 벤치마킹 업무를 맡고 있다. 우연히 참석한 세플러 아카데미 포럼에서 세플러의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회사분위기에 매료되어 입사했다는 그는 이수미 과장보다 입사연차는 짧지만 누구보다 세플러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에코캠퍼스, 에코백, 에코하우스까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여행 또한 자연을 벗삼아 떠나는 에코여행이 대세다. 특히 우리나라의 친환경 여행지로 손꼽히는 순천만에서 생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니 자칭 세플러의 에코인들을 따라 제대로 된 에코여행을 즐겨보자.



1 Couple.

최승호 연구원
연구소
제품기술팀

이수미 과장
안산공장
공장운영실기획파트



2 Couple.

이창현 연구원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경미 사원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하루가 모자라는 에코여행

걸음을 옮겨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23개국 82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고즈넉함이 느껴지는 한국 정원은 물론,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모티브로 한 프랑스 정원과 빨간 장미가 낭굴을 이루고 있는 영국 정원, 풍차를 그대로 옮겨온 네덜란드 정원까지 이국적인 풍광도 물론 느껴진다. 그밖에도 동화 속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정원,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꾸민 꿈의 다리, 홍학과 각종 물새가 노는 물새놀이터까지 구경거리가 넘쳐난다. 세플러 커플들은 볼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 하루가 짧다며 아쉬워한다.

나와 세플러는 환상의 짝궁

살면서 이렇게 많은 꽃들을 한 번에 보기는 처음이라는 두 번째 커플 연구소 제품기술팀의 이창현 연구원과 안산공장 품질보증팀의 김경미 사원. 형형색색의 장미와 여러 이름을 가진 세계의 꽃들이 신기한 눈치다. 김경미 사원은 품질보증팀 정밀측정실에서 측정업무를 6년째 해오고 있다.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Tip.

-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전라남도 순천시 남승룡로 66
- ▶ 홈페이지 : www.2013expo.or.kr
- ▶ 관람시간 : 09:00 ~ 19:00
야간개장일 09:00 ~ 21:00
- ▶ 입장료 : *성인: 16,000 *청소년 : 12,000
*어린이 : 8,000(보통권)
- ▶ 관람코스
*어린이 동반 가족 코스
빛의 서문→순천만국제습지센터→야생동물원
→꿈의 다리→실내정원→어린이 놀이정원→잔디마당
- ▶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 코스
지구 동문→아수의 장미공원→갯지렁이다니는길
→프랑스정원→중국정원→한방체험관→독일정원
→네덜란드정원→미국정원→태국정원→실내정원



넓게 펼쳐진 꽃들과 초목들을 보면서 한결 상쾌해진 기분입니다. 바쁜일상을 뒤로하고 짧지만 동료들과 즐거운 유쾌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덩달고 에어컨 앞에만 계시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 자연을 느껴보세요.

된 것이 행운이었다는 김경미 사원은 동료들과의 시간을 적극 즐긴다. 동료들과 같이 자전거 라이딩도 하고 워크숍 때 처음 접해본 보드의 매력에 빠져 겨울마다 스키장을 찾는다고. 평소 부지런한 성품과 활발한 성격 덕에 각종 스포츠를 즐기다보니 뜨거운 햇빛에 이곳저곳을 누벼도 지친기색 하나 없나보다. 역시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창현 연구원도 스포츠 얘기에 눈이 빛난다. 최승호 연구원과 같은 제품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현 연구원은 자동차에 쓰이는 베어링을 알맞은 용도에 맞게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바쁜 일과 중에 선배, 동료들과 함께 족구 한판을 즐기며 인간관계도 다지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얻고 있다.

기분 좋게 떠난 여름휴가지에서 발에 차이는 쓰레기 혹은 정체된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등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세플러 커플들이 에코여행을 떠났다.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녹색환경을 실천해온 세플러 커플들이지만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게 많단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야겠어요. 세제 덜 쓰기,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등이요." 굳게 약속하는 두 커플. 어느새 세플러의 환경운동가가 된 듯하다. "세플러 가족분들도 에코여행 즐기시고 모두 에코 세플러인이 됩시다."



바람도 솔솔 불고 예쁜 꽃들과 정원을 보니 숨도 트이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원들이 인상에 꽤 남더라고요. 구석구석 다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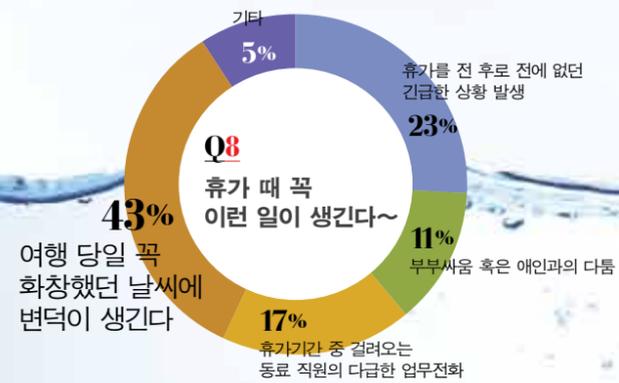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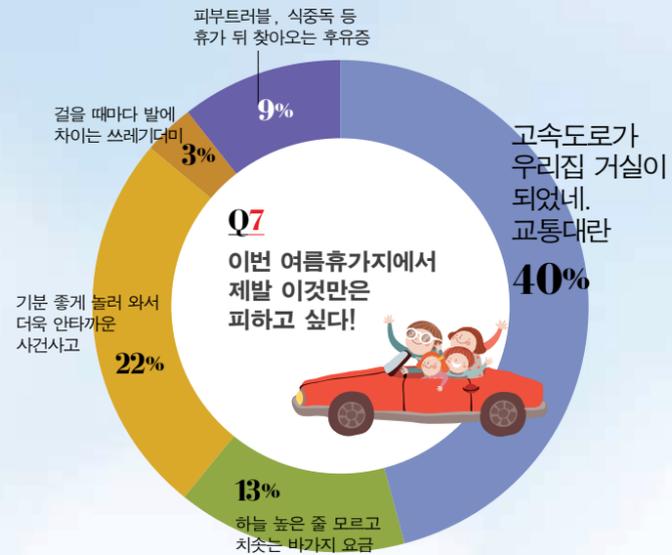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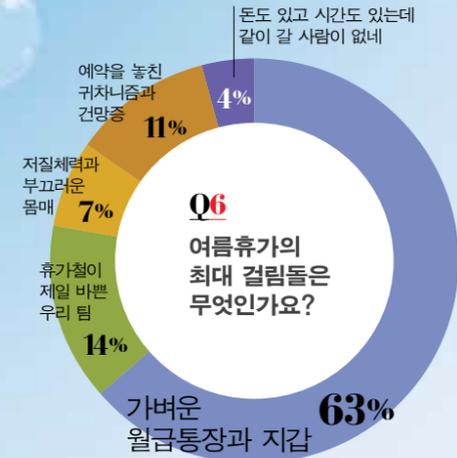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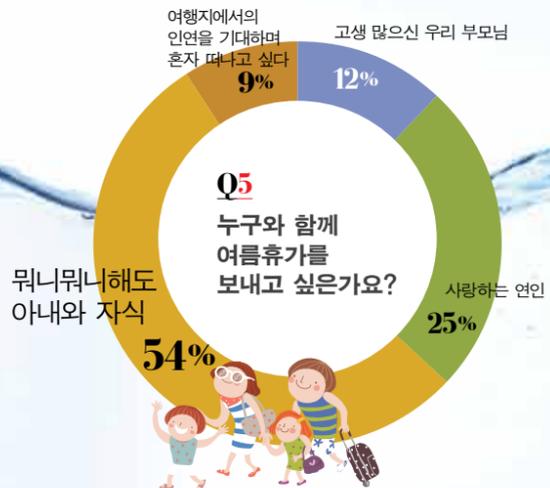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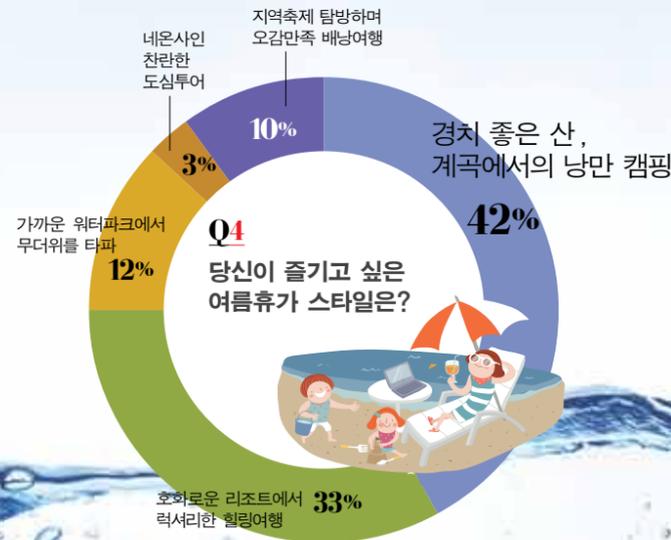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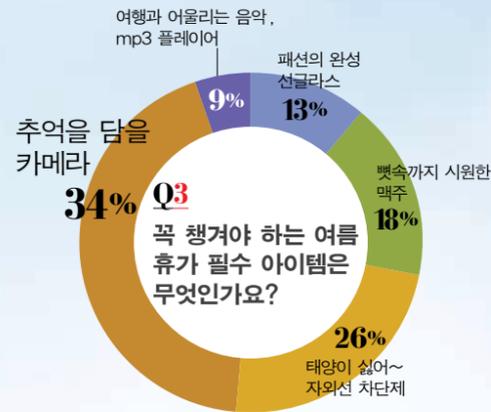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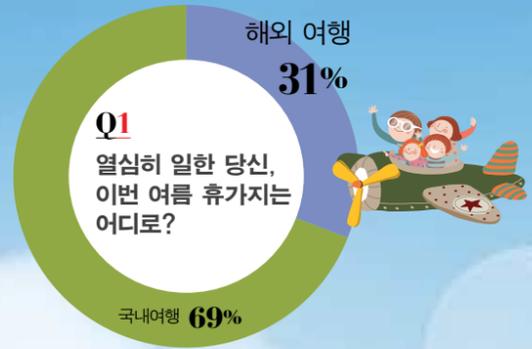


세플러인들에게 묻는다!

‘내 생애 최고의 여름휴가’

와~여름이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번 여름휴가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는 세플러인들.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일한 세플러인들이여 떠나라!
그들만의 짜릿하고 신나는
여름이야기를 들려다보자.

설문대상 : 세플러코리아 전직원
설문기간 : 2013년 5월 24일~6월 18일
총 응답자수 : 115명



세플러인이 추천하는 여름휴가지

- ↳ **지리산** 어떠세요? 맑은 공기, 시원한 계곡,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달달한 막걸리 등 힐링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요.
- ↳ 대세는 힐링과 오지체험 아니겠어요? **외딴 섬**으로 들어가 세플러적으로 살다 오시는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 ↳ 청정 바다 **진도**와 **완도**. 특히 완도는 싱싱한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들을 값싸게 맘껏 먹을 수 있어 좋아요.
- ↳ 단연 **제주도**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울인의 촬영지 십지코지, 추노, 아빠 어디가 촬영지 쇠소깍, 우도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 ↳ **스페인**은 어떠세요? 중세 도시와 가톨릭과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고 투우와 플라멩고를 볼 수 있는 곳.
- ↳ **이집트**의 오래된 역사와 함께하는 사막 투어를 추천합니다. 고요한 밤, 사막 한가운데서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과 수없이 떨어지는 별뿔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늘로 꼭 빨려 들어갈 것만 같더라고요.
- ↳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계곡**이요. 물도 맑고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도 많이 물고기도 잡고 가족과 물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 ↳ 가까운 **밀양 얼음골** 좋습니다. 계곡수온이 5도 미만이며, 바위 사이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불가사의(?) 한 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세플러인이여! 홈런을 날려라~

- 창원공장 생일자를 위한 생일 선물



마산구장 전광판에 적힌 환영문구



온가족 야구장 나들이



“마! 새리라~” 야구장에서 열린 생일파티

제작년 창원시를 연고지로 새롭게 창단한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창원공장 직원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올 시즌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경기는 만만찮은 상대 SK와이번스와의 두 번째 경기. 전날 두 점 차로 아깝게 승리를 내어줘서인지 오늘 응원에 만전을 기해보는 창원공장 생일자들이다. 동료들과 시원한 여름 바람속에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니 절로 흥이 난다. 게다가 오늘은 생일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료들과 가족들도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더했다. 아빠 엄마 손잡고 야구장 나들이 나온 아이들도 저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응원 도구를 잡아들었다.

참여자(왼쪽부터)

- 김형주 사원 1PU 볼베어링 생산2팀(5월 11일)
- 김만금 사원 유틸리티운영팀(5월 16일)
- 최규천 사원 6PU 테어퍼플러생산팀(6월 11일)
- 문준식 사원 1PU 볼베어링 열처리팀(8월 13일)



동료와의 추억은 특별한 생일선물

자리를 잡고는 판넬을 돌돌 말아 고깔을 만들어 본격적인 응원전에 돌입했다. 예쁜 미녀 응원단이 한껏 흥을 돋우고 신나는 응원가에 박자를 맞춰본다. 더 많은 팀 동료들도 함께 와서 응원했으면 좋았을텐데 교대근무 때문에 오지 못해 안타깝다는 최규천 사원은 동료들을 대신해 더욱 목청을 높여본다. 창원공장 생일자들의 응원 덕분이었을까? 1회 NC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터진 안타로 순식간에 야구장이 한바탕 들썩였다. 그 어떤 생일 선물보다도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짜릿한 추억을 선물받은 듯하다.

평소 생일 날이면 미역국에 생일케이크 챙겨먹기도 어려웠다는 창원공장 생일자들. 나이가 먹어갈수록 누군가에게 생일상 받는 것조차 쑥스럽고 미안해진다. 그래도 값비싼 생일 선물보다 축하한다는 동료의 따뜻한 축하인사 한마디가 있어 아주 서운하진 않다고. 그런데 오늘만큼은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고 특별한 추억을 서로에게 선물하니 단연 기억에 남는 생일이 아닐까.

세플러의 흥분을 기대하며

창원공장 생일자들은 수비타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응원에 더욱 열기를 더한다. 그들의 응원 덕분이었는지 경기결과는 11대 5로 NC다이노스의 대승리였다. 서로의 손뼉을 부딪히고 어깨를 얼싸 안으며 함께 승리를 기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더불어 세플러의 미래도 응원해 본다. 누구는 투수, 누구는 내야수, 누구는 타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세플러인. 창원공장 생일자들은 오늘 세플러라는 이름으로 멋진 플레이를 선보일 우리 세플러코리아 선수들에게도 응원의 합성을 보내본다. "세플러 할 수 있다. 파이팅!!"

Interview +one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 생산2팀 김형주 사원



평소 생일날이면 가족들과 조출하게 식사정도 하거나 회사에서 나오는 쿠폰이 생일 선물로는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함께 생일을 맞는 동료들과 야구 경기를 관람하니 색다르고 기분이 좋네요. 또 저희가 응원한 NC다이노스가 큰 점수 차로 화끈하게 이겨워서 더욱 기쁜 하루였습니다. 우리회사도 동료들과 함께 응원한다면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세플러코리아 항상 파이팅입니다.



장성철 作 / 캔버스에 아크릴릭 / 2007

파란 하늘 위로 떠다니는 구름을 마치 언덕 위에 누워 바라보는 듯한 그림이다. 솜털같은 구름떼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쾌청한 날씨에 꽃잎이 흩날리듯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한다. 파란색은 간과 담에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맑게 하며 동글동글 작은 노란색은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준다. 빨간색은 자칫 차가워질 수 있는 그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색채마음연구소(www.multitherapy.com)

캠핑없는 못살아 캠핑마니아의 여름나는 법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백승래 사원 가족

도시 전체가 관광지인 거제. 바다에 머문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금세 푸른 산등성이가 펼쳐진다. 여름휴가지로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이곳은 벌써부터 피서객들로 북적인다. 백승래 사원 가족들도 일찍이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여름캠핑을 떠났다.

일도 고수, 캠핑도 고수

현재 열처리 공정이 끝난 선삭 가공품의 외경연마하는 작업을 맡고 있는 백승래 사원은 세플러코리아 입사 18년차의 내공을 자랑한다. 회사에서는 Nichols는 성격과 탁월한 일처리 능력으로 팀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동료들이 그를 찾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그가 올해 8년차인 캠핑마니아기 때문이다. 장비부터 남다르다 했더니 사내에서 유명한 캠핑고수였던 것. 게다가 캠핑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와 추억들을 블로그에 부지런히 기록하고 있단다. “햇수가 오래되니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장비나 장소를 물어보는 동료들에게 최대한 캠핑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 백승래 사원 블로그 blog.daum.net/bah3869

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 자란 아이들

백승래 사원 가족이 캠핑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은 8년 전 아무런 준비 없이 동호회부터 무작정 가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동호회를 통해 덕유산에서 열린 전국 캠핑대회에 참가했었는데, 캠핑이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그곳은 별천지였단다.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캠핑시설이나 커뮤니티가 발달하지 않아서 고생했지만 대중화된 지금은 초보자들도 쉽게 캠핑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보니 큰아들 현석이와 막내아들 락준이가 유치원에 다니기도 전부터 캠핑을 시작한 셈이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아이라 그런지 평소엔 말수가 적지만 캠핑지에서 자란 아이들답게 캠핑만 나오면 애정표현도 많이 하고 아빠와의 대화도 부쩍 많아 진다고. “뽀뽀 해줘도 밤에 모닥불 피워 놓고 아빠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빠와 함께 준비한 점심식사는 단연 꿀맛. 식사를 한 후엔 아빠와 공도 주고 받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탄다.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 캠핑에 우리집 귀염둥이 애완견 '먼스'도 빠질 수 없다.



캠핑마니아가 말하는 캠핑 노하우

백승래 사원 가족의 캠핑 노하우는 바로 ‘철저한 준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캠핑 겸 여행을 떠났는데 1년 전부터 한 해 동안의 여행계획을 미리 세워둔단다. 특히 계절별 명소와 먹거리를 찾아보고 이동 선과 머물 곳을 정한다.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목소리나는 아내 안영선 씨의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하나의 팁을 덧붙인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처음부터 욕심내서 많을 것을 사기보다 계절별로 필요한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는 여름캠핑을 시작으로 시즌마다 차례로 구입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고가여도 A/S가 잘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름캠핑의 낭만은 뽀뽀해도 모닥불 앞에 동그렇게 둘러앉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큰아들 현석이는 요즘 한창 기타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캠핑에 살고 캠핑에 죽는 캠핑마니아 가족답게 일상이 곧 캠핑이 되버린 우리가족,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캠핑을 떠난다.



(왼쪽부터) 큰아들 현석, 막내아들 락준, 백승래 사원, 아내 안영선 씨

어머! 이 선글라스 나한테 딱이야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꾸려야 할 짐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아이템. 바로 선글라스다. 휴가 지뿐만 아니라 요즘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자외선지수 때문이라도 외출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돼버렸다. 그러나 선글라스는 패션아이템 역할뿐만 아니라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쯤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왕 고르는 거 나에게 딱 어울리는 선글라스로 눈도 보호하고 스타일도 한껏 살려보자.

내 얼굴엔 어떤 선글라스가 어울릴까

둥근 얼굴



둥글둥글한 얼굴 유형은 귀엽고 어려보이는 인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선글라스마저 둥근 것을 착용한다면 더 둥그랗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너무 좁은 프레임은 불살이 더욱 부각되어 보이므로 얼굴 윤곽선보다 프레임이 크고 각진 스퀘어형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란형 얼굴



사실 계란형 얼굴은 어떤 선글라스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축복받은 얼굴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잉스타일이나 나비모양의 버그 아이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며, 컬러풀하고 과감한 디자인의 선글라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각진 얼굴



광대나 턱이 각진 얼굴형은 얼굴의 각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스퀘어 프레임의 선글라스는 피해야 한다. 대신 선글라스 아랫부분이 둥근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각진 인상을 완화시키며 끝이 살짝 올라간 캣아이 스타일은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단점을 커버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역삼각형 얼굴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역삼각형 얼굴은 자칫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선글라스 선택에 유의를 해야 한다. 또 차가운 느낌의 메탈 소재 보다는 플라스틱 소재의 프레임이 좋다. 전체적으로 얼굴 폭보다 넓은 크기의 선글라스는 얼굴형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며, 얼굴형과 비슷하게 생긴 에비에이터형(보잉스타일)도 좋지 않다. 끝을 부드럽게 굴린 모양이나, 굵은 프레임이 얼굴 하단을 넓어 보이게 해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다.



긴 얼굴

긴 얼굴형은 얼굴 폭에 딱 맞는 선글라스는 얼굴을 더욱 길어보이게 하므로 피해야 하며 지나치게 위로 치켜 올라가지 않는 선글라스를 선택해야 한다. 프레임이 가는 것 보단 볼륨감이 있고 양옆으로 긴 것이 좋으며 양 옆에서 템플로 이어지는 부분에 주얼리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간 선글라스를 선택하면 가로로 분할되어 보여 긴 얼굴을 커버할 수 있다.



선글라스 구입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1 낮에 착용하는 모든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UV 처리된 렌즈가 백내장 예방에 좋다.
- 2 선글라스 색상농도는 거울에 자기 눈이 비춰보일 정도인 70-80%가 적당하다.
- 3 고글형태의 선글라스는 커브가 심하면 렌즈면의 수차 현상으로 어지럽고 원근감이 달라져 보임으로 가급적 커브가 심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선글라스 오래 사용하는 보관법

- 1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에는 양손으로 착용해야 한다. 선글라스를 한쪽만 잡고 쓰거나 벗으면 한쪽이 기울어 지거나 파손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 2 선글라스도 고열에서는 약하다. 차량에서 내리면서 선글라스를 두고 내리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차량에서 선글라스를 보관할 때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 3 세척할 때 알칼리 세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선글라스 렌즈는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누와 같은 알칼리 세제로 선글라스를 닦으면 안되고 물로 씻거나 티슈로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것이 좋다.

용도에 맞는 렌즈 선택법

- 1 YELLOW _ 흐린 날씨나 밤에 착용하면 좋다. 특히 야간 운전엔 좋다.
- 2 ORANGE _ 먼지에서 일어나는 빛을 방지하므로 사격 선수나 어두운 산업장, 야간 운전엔 좋다.
- 3 BROWN _ 시야를 선명하게 하는 색상으로 사물을 밝고 깨끗하게 볼 수 있다. 물 속, 스키장, 운전 중에 좋다.
- 4 GRAY _ 모든 색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색이다. 가장 많이 착용하나 색이 너무 짙으면 눈이 피로해 진다.
- 5 GREEN _ 자연색에 가까워 색상의 식별이 빠르다. 해변, 스키장, 운전 중에 좋다.

물 위를 달리는 사나이들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최호진 사원과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 생산2팀 박정오 사원의 수상스키 도전기

하얀 물살을 가르며 물 위를 질주하는 수상스키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끼는 매력적인 여름 레포츠다. 이러한 수상스키를 배우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여름의 한가운데로 다가선 창원공장의 박정오 사원과 연구소 최호진 사원의 좌충우돌 수상스키 강습의 현장을 지켜보자.



겨울엔 스키! 여름엔 수상스키?!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저변화되고 있는 수상스키는 겨울에 즐기는 스키와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타는 법을 배워 즐길 수 있다. 수상스키 역시 스키처럼 양발이 각각의 보드로 이뤄진 스키 방식과 두발을 함께 하나의 보드에 부착된 형태로 타는 웨이크보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자 겨울스키를 즐기는 방식에 따라 선택해서 탈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상스키에 도전하게 된 최호진 사원과 박정오 사원의 경우는 겨울스키를 별도로 즐기고 있지 않아 나이에 맞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웨이크보드 방식으로 강습을 받기로 했다.

물 위로 가기 위한 멀고도 험한 길

수상스키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타는 스키이기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필수이고 물과 마찰될 경우 다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신구의 착용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반드시 지상훈련을 통해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수상스키를 탈 자격이 주어진다. 수상스키의 교육은 크게 지상훈련과 수상훈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상훈련은 다시 보트에 부착된 붓을 잡고 물에 뜨는 과정을 배우는 붓훈련과 줄로 이어진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지상훈련을 받고 있는 두 사람

수상스키를 타는 최종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호진 사원과 박정오 사원도 전문 강사에게 30여 분 이상 충실히 지상 교육을 받은 후 물가로 이동했다. 수상훈련은 최호진 사원이 먼저 실시한 후 박정오 사원 차례로 실시하기로 했다. 웨이크보드를 신고 이내 물속으로 뛰어든 최호진 사원은 기대반 걱정반의 기분으로 잔뜩 긴장한 모습이였다. 보트에 부착된 붓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이윽고 힘찬 소리를 내며 모터보트가 출발했다. 그들의 진짜 도전이 막 시작된 것이다.

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

보트가 출발하자 최호진 사원은 물위로 살짝 떠오르느가 싶더니 이내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쳤다. 그러자 수상훈련을 담당하던 베테랑 강사의 호통이 이어진다. 수상훈련은 물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위 군기(?)가 바짝 든 채로 진행되어 야만 했다. 호랑이 강사의 매서운 질책과 함께 물 위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길 수차례. 드디어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며 하얀 물살을 가르다.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물 위를 달리는 희열과 쾌감을 온 몸으로 전해 받은 표정이다. 박정오 사원도 물과의 사투 끝에 잠시나마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이렇게 물위로 오르기까지 두 시간여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정해진 수상스키 강습이 마무리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수상스키 자체를 즐기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그리고 언제고 다시 시간을 내서 꼭 수상스키를 마스터 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지금은 비록 물에 빠지는 게 더 익숙한 어설플 모습이었지만 언젠가 바람처럼 물위를 가르며 우리 앞에 나타날 멋진 두 세플러인의 모습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최호진 사원

지상훈련을 열심히 했으나 수상훈련에서 마음처럼 쉽지 않아 물에 여러번 빠지며 힘겹게 초보 단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모로 즐기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수상스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 생산2팀 박정오 사원

평소에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수상스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 했습니다. 보기에는 쉬웠지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기념일도 모르는 남편, 무심해도 너무 무심해



남편들에게 기념일을 행기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 100일, 200일, 300일 등의 숫자 기념일들, 발렌타인 데이, 키스 데이, 로즈 데이 등의 '00데이' 기념일들에 더하여 연애를 하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기념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내라 하더라도 무심코 지나치는 남편을 보면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섭섭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기념일들을 마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칭찬받는 센스쟁이 남편은 어떻게 기념일을 챙기고 있을까?

반드시 챙겨야 할 기념일, 생일과 결혼기념일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머지 기념일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념일에 대해 아내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각종 기념일들을 장사치의 사술이라거나 가치 없는 날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그만큼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섭섭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철이 들지 않았다는니, 정신상태가 굴러먹었다는 등의 막말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비록 잦다한 기념일들을 챙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아내의 행동 관찰을 하라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도 있지만, 상당수의 여성들은 남자가 알아서 챙겨주길 바란다. 물론 남자는 독심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내의 평소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아내가 평소에 즐겨보는 잡지나 인터넷에서 예쁘다고 말하는 물건들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데이트를 하거나 장을 볼 때, 즐겨보는 물건들이 있다면 유념해서 관찰해보자.

아내들은 그냥 보는 것일 뿐이며, 단지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다가, 할인 판매를 하면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미리 미리 관찰을 잘 하고 있다가 할인할 때 구입해서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효과를 극대화 하는 비법, 예고편을 날려라.

남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자는 지나치게 큰 것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적당한 관심과 사랑을 매일 매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에게 큰 선물을 하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남자들 중 대다수는 여자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당일 전날이나 당일예 구입하는데, 이것은 여자에게 매우 무성 의한 태도로 워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실제로 구입을 하거나 전달을 하는 날은 기념일이라 할지라도 미리 예고편을 날려보자. 여자는 기념일이 되는 날까지 매일 예고편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그 때마다 보너스 점수를 얻게 된다. 혹 여자가 맘에 들어 하지 않는 선물일 경우 선물을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문화공연을 관람하거나 외식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기 용돈에서 선물을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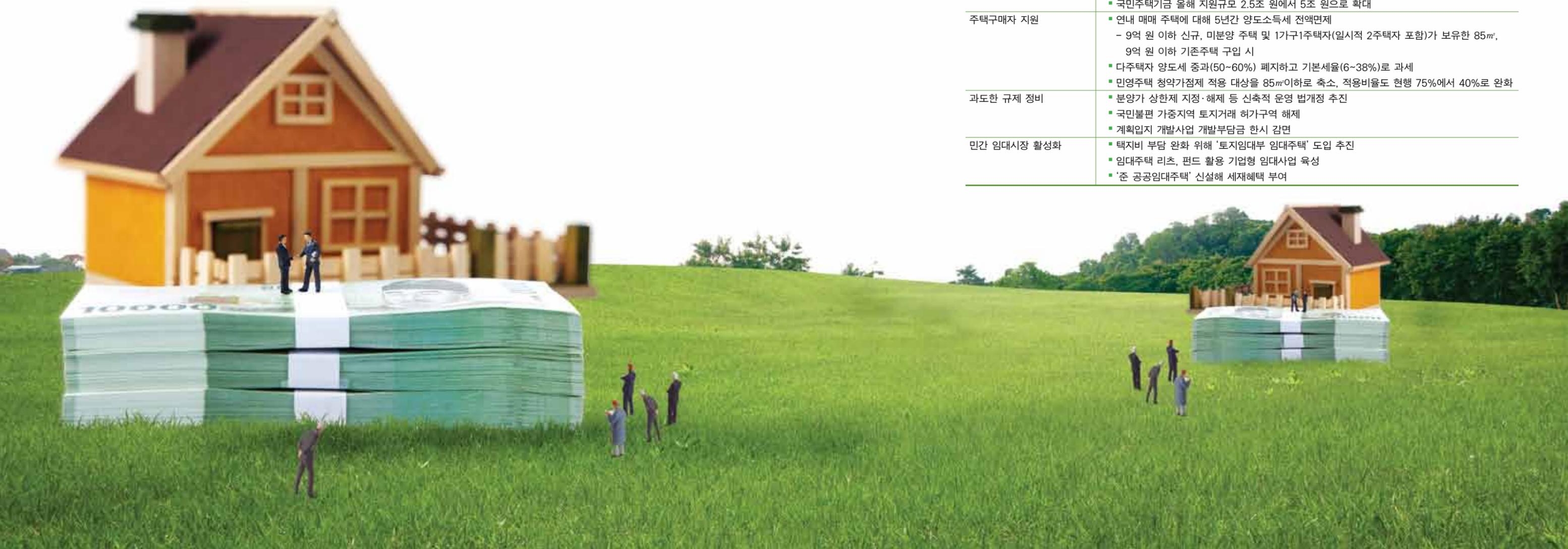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는데 남편이 용돈을 따로 받아서 쓰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남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선물 값은 고스란히 생활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럴 경우 여자는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생활비와 용돈을 구분하고, 용돈은 따로 받아서 각자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선물은 자기 용돈으로 준비한다면, 그 액수가 크지 않아도 여자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남자에게는 사랑한다는 것은 한번 정하면 잘 바뀌지 않는 진실과도 같은 것이라면, 여자에게는 지속적인 표현이 필요한 현재 진행형 동사와도 같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너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비싸고 큰 선물보다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남편의 자격이지 않을까?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4.1 부동산 대책, 아는 만큼 보인다

주택 공급은 짧게는 2~3년, 길면 5~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때 가장 유념해야 할 내용은 앞으로 어느 지역, 얼마만큼의 주택 공급이 될지를 알아야 한다. 주택에 투자하려면 주택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정책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이하 4.1대책)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서서히 생기고 있는 것이다. 세금, 공급, 금융 등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만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따져봐야 한다.



주거복지 지원방안

분야	항목	내용
하우스푸어 지원	채무조정할성화	▪ 자산관리공사 통한 부실채권 매입 및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 도입
	임대주택리츠 도입	▪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 5년간 임차 생활 보장
렌트푸어 지원	집주인 담보대출제 전세 도입	▪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내주고, 임차인은 이자를 갚는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전세 도입	▪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임차인에게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공급	▪ 임대주택 7만호, 매입, 전세방식 4만호 연내 공급
	행복주택 5년 간 20만호 공급	▪ 철도부지 등 도심 내 공공보유 토지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도입	▪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지원대상, 지원액 강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항목	내용
공공주택 공급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양주택의 물량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축소 ▪ 2013~2017년 연간 신규 인허가 물량 1만호 수준으로 관리 ▪ 수도권 그린벨트 안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기존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 조정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85㎡ 이하 주택 구입 시 ▪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은행 자율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 완화 ▪ 국민주택기금 올해 지원규모 2.5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
주택구매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매매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억 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 및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 9억 원 이하 기존주택 구입 시 ▪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50~60%)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
과도한 규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등 신축적 운영 법개정 추진 ▪ 국민불편 가중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계획인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비 부담 완화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추진 ▪ 임대주택 리츠, 펀드 활용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준 공공임대주택' 신설해 세제혜택 부여



주택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택 정책을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자. 첫째, 수요 또는 공급 측면에서 확대 또는 억제 정책인지를 판단해 향후 시장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1대책은 침체된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요 확대 정책이다. 하지만 동일한 정책이라도 어떤 지역에는 수요 억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 향후 정책 효과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시행 시기나 공급 형태나 규모를 살펴보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재산, 직장의 위치, 자녀의 학교 등을 고려해 내 집 마련용으로 적절함을 판단해 봐야 한다. 만약 분양받는 것이라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다.

셋째, 장기간 지속될 정책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은 정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시장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고, 과거에 검증된 정책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결국 시장에서 공감을 얻어야 정책이 오래갈 수 있고 과거 오랫동안 유지된 정책일 경우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 4.1대책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지역을 선택한 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Q & A



1.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조건이 확실히 정해진 것인가요?

5월 7일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됐고요. 특징적인 것은 흔히 '애프터리빙' 이라고 알려진 분양조건부 전세 아파트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동안 분양조건부 전세 아파트는 임차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미분양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됐죠.

2.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쉽게 찾는 방법은 '부동산114'와 같은 정보업체의 분양색선으로 가서서 현재 분양중이거나 미분양 단지를 지역별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믿기 보다는 현장에 전화해서 조건이나 남아있는 물량 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미분양 혜택 등은 기존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홍보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미분양 아파트 주의점은요?

잘만 고르면 세금혜택도 받고 여러 혜택을 챙길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이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남아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만큼 미분양이 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격 때문인지, 입지 때문인지 파악하시고요. 특히 미분양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o Communicate

이 한장의 사진

안산공장
설비보전팀
김선진 과장

우리가족 행복했던 그 여름날



지난 5월 중순, 모처럼 휴가를 내어 양양 쓸비치에 갔었는데 콘도 앞바다에서 한 컷 찍었습니다.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엄마가 다 키워주셔서 종종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 편입니다. 신랑도 편하게 생각하고 엄마도 저희 식구들과 격이 없이 지내시는 편이라 저희 가족여행에 자주 초대를 받으시죠.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여행에 동참해 주셨네요. 큰아이가 6살, 둘째가 4살... 애들이 어릴 땐 여행은 물론이고 가까운 마트 가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늘 친정엄마가 도와주셨죠. 아이들이 어느정도 커서 제가 데려와 키워보니 친정엄마의 고생스러움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평소 효도다운 효도도 못하고 지내지만, 이런 짧은 여행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아이들 이쁘게 커가는 모습,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



세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활동

세상과함께 늘푸르게

세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은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산안마을에서 워크숍을 겸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학생 봉사단 20명이 참여하여 무소유 공동체 생활을 실행하고 있는 산안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로 나무심기, 잡목제거, 양계장 일손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상록수’처럼 늘 푸르게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및 기업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9일 창단했다. 이들은 대학교 재학생 2~4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한 남자 9명 여자 11명의 총 20명으로 구성된 순수 봉사활동 단체다. 이들은 향후 올해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독거 노인센터 급식봉사, 김장, 장애아동 나들이 도우미 등 봉사활동을 월1회 진행할 예정이다.



무소유 공동체 '산안마을'의 다함께 잘사는 법을 배우다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의 첫 걸음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산안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산안마을'은 무소유 공동체 야마기시즘을 실현해 가는 마을로 쉽게 말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 사는 삶을 지향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마을 안 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씨는 대학생 봉사단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첫 질문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답을 내어 놓았지만, 확실한 정답을 내어 놓지는 못했다. 이에 질문자는 질문보다 알기 어려운 대답을 내어 놓았다. '진실한 나를 발견하고 나만이 아닌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난해한 명제를 마음에 품고, 드디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다

대학생 봉사단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일은 마을 조성에 필요한 나무심기와 사철나무 잡목제거였다. 남학생들에게는 묘목에서 성목으로 자라난 나무를 준비된 장소에 옮겨 심는 일이 주어졌다. 여학생들은 사철나무 위에 죽어 있는 잡목을 깨끗이 걷어내는 일을 맡았다. 낫설기만 한 삽질과 씨름중인 남학생들과 가시덤불 같은

Interview +one

박종현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4학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20명의 친구가 새로운 가족 같습니다. 또한 봉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 봉사단이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기간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삭막한 세상에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배우고 싶습니다.

잡목을 맨손으로 걷어내는 여학생의 얼굴에서는 연신 굵은 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하나 힘든 내색 없이 주어진 일을 묵묵히 밝은 표정으로 진행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작업은 저녁 무렵에서야 끝이 났고 일이 끝난 이후 다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저녁식사 이후 뒷풀이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했다.

이튿날에도 이들의 일은 계속 이어졌는데, 20명의 단원 중, 15명은 사철나무 묘목 옮기기 작업을 진행하고, 5명은 양계장에서 계란을 걷는 작업을 했다. 계란 걷기가 끝나고, 마을에서 선물한 계란 4판으로 맛있는 계란 요리도 함께 만들어 먹으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일정을 마치며 대학생봉사단 각자의 마음속에 첫날 받았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터였다. 다함께 잘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세플러코리아와 'EVERGREEN' 봉사단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것이다.



산안마을에 도착한 대학생 봉사단은 무소유 공동체의 삶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Tip.

야마기시즘 실현지 '산안마을'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 는 회지로 설립된 행복회 야마기시회가 운영하는 산안마을의 정식명칭은 야마기시즘 생활 실현지로서, 야마기시즘의 이념으로 인간생활 전반을 영위하며 나타내려고 하는 곳이다. '돈이 필요 없는 사이좋은 즐거운 마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산안마을은 무소유, 공유, 일체생활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 문의 : 031-353-3920 / www.yamagishism.co.kr



사철나무의 묘목을 옮겨 심고 있는 대학생 봉사단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배움의 현장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연수원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에는 4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신입사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세플러코리아의 환한 미래를 만들어 갈 신입사원들의 포부를 들어보자.



서울사무소 구매팀 김태우 사원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세플러코리아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비재산업센터 한제웅 사원
패자는 소설을 쓰고 승자는 역사를 쓴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플러코리아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구매팀 장영민 사원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안산공장 공정기술팀 장경훈 사원
세플러코리아에서 근무하게 되서 기쁩니다. 당장은 서툴지만 빨리 적응해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 이루다 사원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배우는 사원, 세플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안산 길복문 사원
꿈의 기업인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해서 너무도 기쁩니다. 항상 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 원동현 사원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고자 노력했더니 이렇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내겠다는 이 초심을 가지고 회사의 강한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안산 이성세 사원
앞으로 우리회사 제품 디자인업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 자신을 연마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안산 이경천 사원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들어와서 만족합니다. 정년 30년을 채우고 세플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기술연구소 안산 손창현 사원
현재는 제가 맡게 된 직무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세플러코리아가 발전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안산공장 영업관리/기획팀 이상훈 사원
영업관리 부서가, Intercompany가 미소 짓게 하는 수출업무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안산공장 영업관리/기획팀 유준선 사원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면서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질보증팀 전주 한서훈 사원
다른 신입들에 비해 많은 나이에 입사한 만큼 더 열심히 뛰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전주공장 공장운영실 임남진 사원
'몸은 태산처럼 하되 마음가짐은 풀처럼 낮추라' 세플러코리아 사원으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되, 항상 겸손함의 미덕을 잃지 않겠습니다.



설비보전팀 전주 정희성 사원
끈기와 패기를 가지고 앞으로의 세플러코리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전주공장 업무지원팀 신준모 사원
자랑스러운 세플러코리아의 직원으로서 맡은 임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



전주공장 업무지원팀 이보석 사원
제가 힘들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세플러 코리아!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 전주 박한국 사원
신입사원의 패기로 열심히 노력하여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매팀 창원 임호준 사원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밥값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매팀 창원 이성실 사원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고, 항상 이름처럼 성실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수원 연구원
입사할 때 가지고 왔던 마음가짐 '언제나 배우는 태도로 회사생활에 임하자'를 지키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손정형 연구원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세플러코리아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제 직장이 된 세플러코리아에 기여하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유태택 연구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일 잘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남윤건 연구원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연구원이 되어, 세플러코리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승준 연구원
그토록 바라던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드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공정기술사업부 공정개선팀 이준호 사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 나부터 실천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공정기술사업부 공정개발팀 송준한 사원
처음 부서로 배치 받았을 때의 실렘과 기대감을 잊지 않고 항상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구매팀 김택순 사원
앞으로 복무기간 30년쯤 되는 군대에 입대했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열심히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구매팀 최정훈 사원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구매 전문가가 되고, 세플러코리아의 높은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간판 사원이 되겠습니다.



창원공장 생산관리팀 김경욱 사원
항상 입사할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꾸준히 분발하여 통련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창원공장 생산관리팀 배명환 사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을 즐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공정기술사업부 공정개선팀 서윤주 사원
세플러코리아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리팀 창원 강지웅 사원
저는 짧은 시간 안에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차후에는 전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품질보증팀 창원 정재웅 사원
신입사원으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창원공장 어버이날맞이 효도관광

부모님과 함께하는 크루즈 효도여행

유람선에 올라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여행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은 어르신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부모님께 평생 잊을 수 없는 크루즈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마음 한켠에
늘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우리네들.
그런 우리 사우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창원공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크루즈 효도관광을 준비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창원공장의 어버이날 효도관광 행사는 1995년도부터 시작, 매
년 진행되어 왔다. 그간 매년 다른 여행지, 다른 코스를 기획해 왔으
니 창원 근처 유명 관광지지는 거의 다 돌아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러다 보니 업무지원팀은 매년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하지만 알찬 프로그램과 매년 새로운 관
광 코스 덕에 호응도가 매우 높고, 매년 참가하시는 부모님까지 있
을 만큼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도 2백여 명의 부모님들
이 참가해 모처럼의 바깥바람에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Interview +one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조성혁 부장



자녀들이 바빠서 부
모님께 효도 못헤드
리는 걸 회사가 조
금이라도 대신한다
면 얼마나 보람된 일
이에요. 여기 오시는
우리 직원들의 부모
님 한 분, 한 분이 다
제 아버님, 어머님 같
은 분들이에요. 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진
행하다 보면, 힘든 것보다는 내년에는 이런 것들
을 더 챙겨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도 관
광을 통해서 사우들과 사우의 부모님이 우리 회
사에 대한 자긍심을 보다 더 가질 수 있으면 좋
겠다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멋진 선상에서 열린 효도여행

부모님들이 크루즈를 타고 관광한 곳은 바로 거제도. 평소 쉽게 접해 보기 힘
든 관광코스인만큼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여느 때보다 높았다. 크루즈 내부에서
펼쳐지는 볼거리 가득한 공연과 선상에서 맞는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흥을 더욱
북돋았다.

거제 바다의 절경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어느덧 시장기가 밀려왔다. 금강산
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이날 준비한 점심 메뉴는 생선회 그리고 굴전. 산지에서
신선한 생선회로 식사를 하는 부모님들은 단연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 보인다.
식사 후 향한 곳은 계룡산 온천.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위치한 계룡산 온천은
탄산유황천으로 피부 질환에 효험이 있어 예부터 유명한 곳이다. 뜨끈한 온천물
에 몸을 담그니,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우느라 쌓인 그 동안의 노고가 싹 풀어
지는 느낌이다. 발그레진 얼굴 때문인지, 모두들 십년은 젊어진 부모님들은 신
선이 따로 없다며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자식을 둔 친구들에게서 이런 효도관광 다녀왔다는 얘기
를 듣기 힘들어요. 우리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 매년 우리를 여행을 보
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잘 놀다가요.”



2013년도 경영설명회 개최



▲ 서울



▲ 안산



▲ 전주



▲ 창원

지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 별 2013년도 경영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경영설명회는 4월 24일 개최된 창원공장 및 연구소 대상 경영설명회를 시작으로, 25일 전주공장, 26일 안산공장, 29일 서울사무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경영설명회는 임직원들의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목표를 공유하고 변화와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임직원의 신뢰와 단합이 중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는 상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

경영설명회는 크게 세가지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번째 파트에는 김재현 사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평소 임직원들이 궁금해하던 세플러그룹의 실적, 우리회사 경영성과, 금년도 사업계획과 전망,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과 전망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어진 두번째 파트에서는 창립 60주년 기념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동영상은 우리 직원 세명과 그 가족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품질보증팀 창원 소속 박성환 주임, 안산공장 생산팀 이영훈 세터, 전주공장 공장운영실 최승범 부장 및 그 가족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영상물을 통해 임직원 개인과 그 가족에게 회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개최된 경영설명회인 만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파트인 질의응답 순서를 끝으로 2013년도 경영설명회가 마무리되었다.

Q1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강화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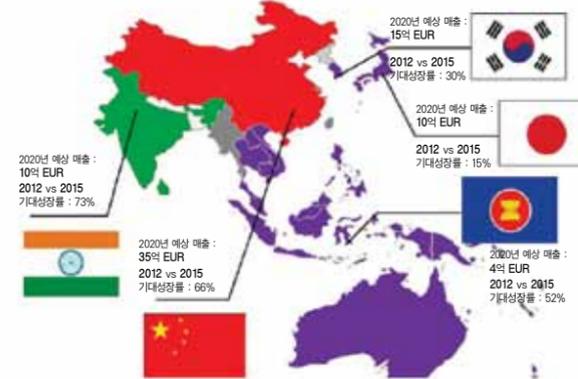
A1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인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최선의 전략은 항상 강조해온 기업의 생존방정식이다. 즉,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정된 품질(Q),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원가 경쟁력(C), 고객을 감동시키는 모든 서비스(D)를 갖추는 것이다.

Q2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품질 원칙 한가지를 정한다면 어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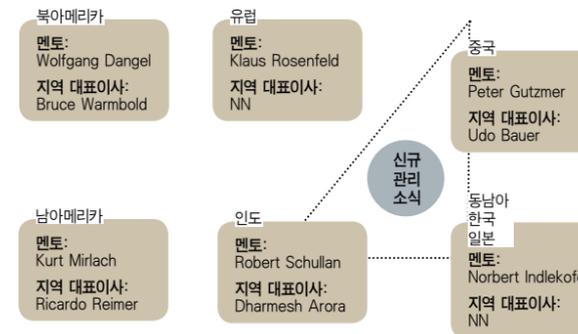
A2 품질 원칙 중 한가지만을 정해달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한가지만을 명확하다. 품질의 기본은 '본인이 해야만 하는 일을 반드시 수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 회사 매뉴얼이나 그룹 가이드라인에 매우 자세히 나와있다. 우리 자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번거로워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야 할 일을 건너뛰고는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자. 원칙을 준수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 개편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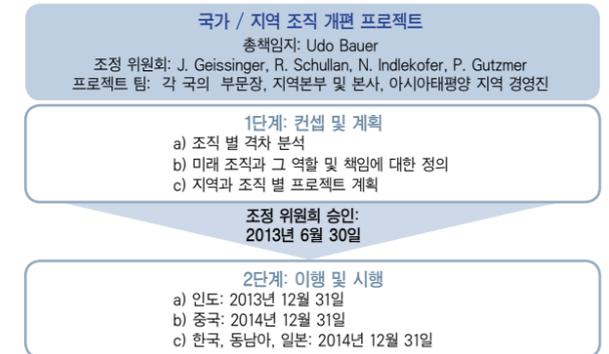
〈지역개편도〉



지난 4월 17일 함부르크에서 그룹 최고 경영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룹 CEO인 가이징어 회장은 퀴스컨트 글로벌(consequent global) 정책을 제시했다. 퀴스컨트 글로벌은 그룹 내 모든 국가의 프로세스, 명칭, 구조, 원칙을 표준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그룹과 동일한 프로세스, 명칭, 구조, 원칙을 갖추기 위한 프로젝트가 수립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른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조직개편이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 개편에는 시장의 요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 규모 그리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 또한 반영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현재의 지역을 더욱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프로젝트 단계〉



2020년 매출은 인도 10억 유로, 중국 35억 유로, 동남아시아 4억 유로, 일본 10억 유로, 한국 15억 유로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 대비 2015년의 성장률은 인도 73%, 중국 66%, 동남아시아 52%, 일본 15%, 한국 30%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 위 수치를 토대로 향후 매출 및 성장률이 높은 인도와 중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에서 분리되어 각각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은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면, 인도는 2014년 1월부터 아시아태평양 조직에서 분리되어, 독일 본사의 협력 아래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그 다음해인 2015년 1월에는 중국이 분리되고, 곧 이어 한국, 동남아, 일본으로 묶인 하나의 새로운 지역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는 퀴스컨트 글로벌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지역 담당 멘토가 지정되었다.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을 담당할 멘토는 Nobert Indlekofer이며, 총괄 할 지역 대표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 개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는 Mr. Udo Bauer이며, 현재는 1단계가 진행 중으로 컨셉 및 계획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 별 차이 분석, 미래 조직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정의, 지역과 조직 별 프로젝트 진행 계획에 대한 미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 되면 2013년 6월 30일 조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단계인 이행 및 시행 단계에 도입하게 된다. 2단계를 통해 인도가 2013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 해인 2014년 12월 31일에는 중국이 독립하게 된다. 동시에 한국, 동남아시아, 일본도 같은 해인 2014년 12월 31일에 별도의 통합된 지역으로 독립하게 된다.

서울사무소 · 베어링 개발 성공사례 공유



5월 31일 섹터운영팀과 제품기술팀 엔지니어들이 모여 베어링 개발 성공 사례를 알리는 자리를 만들었다. 삼성 중공업 7MW 풍력 발전기용 베어링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베어링 신규 개발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향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사무소 · 베어링 스쿨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주 연수원에서 대리점 인원들을 위한 베어링 스쿨이 개최되었다. 제품 개편을 통해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베어링의 종류를 알게 되었고 베어링 장착, 윤활 및 보관 등 실생활에서의 베어링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서울사무소 · 창립 기념식



6월 3일, 세플러코리아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회사의 모태가 되는 신한베어링의 설립일로부터 60주년이 되기도 하는 의미 있는 해다. 창립 기념일 행사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행사에는 사장님의 창립기념사 낭독과 함께 장기근속자 및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 · 농구 동호회 모임



6월 14일, 서울사무소 농구 동호회원 7명이 신촌 창천스포츠센터에 모여 2시간 가량 함께 농구 경기를 즐겼다. 바쁜 업무로 인해 2013년도 첫 모임을 가진 동호회원들은 하반기에는 함께 운동할 시간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모임을 마쳤다.

서울사무소 · 현대기아자동차 협의회 사회공헌활동



6월 20일 현대기아차 협의회에 소속된 타 업체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 장애우시설 바오로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우리회사를 포함하여 두울, 리한, 세방전지 총 4개사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장애우들과 함께 인근 산으로 나들이를 나가서 간식을 나누어 먹고 게임 및 운동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 미니 올림픽



5월 3일, 부서간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서울사무소 미니 올림픽은 재경팀의 최종 우승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다. 미니 올림픽 2위는 정보시스템팀, 3위는 인사팀이 차지했다. 2달 여간 매주 2회씩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나쁜 봄날의 노곤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서울사무소 ·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



5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과 안산공장에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 오토모티브 미팅이 열렸다. 이번 미팅에는 세플러 그룹의 오토모티브 사장인 Mr. Dangel을 포함한 독일 본사의 임원들과 김재현 사장을 포함한 세플러코리아의 임원들이 모여 한국 전반의 비즈니스 현황 및 코리아 콘셉트 2020의 진행 사항 그리고 새로 건립되는 안산공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사무소 · 세플러 테크 교육 실시

6월 4일, T/M&사시 사업부는 INA 생산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INA의 자동차 부품 프레스 기술에 대한 것이었으며, 특히 수동변속기의 핵심부품인 싱크로나이저 부품들에 대한 INA의 제조기술 및 판매현황을 점검하였다. INA는 타사에서 대부분 소결 및 기계가공을 통해 제조하는 해당 부품들을 대부분 프레스로 제조하는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생산단가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능력 또한 타사 대비 우월성을 갖추게 되었다.

안산 ·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5월 13일, 안산공장 전 임직원이 참석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단결팀과 화합팀으로 나누어 축구, 족구, 지구나르기, 제기차기 등 많은 경기가 진행되었고, 모두 열심히 경기에 참가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우승은 아슬아슬한 점수차로 단결팀이 또 한번 우승을 거머쥐었고, 노사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던 행사였다.

안산 · 노조간부 상반기 워크숍 실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여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의 노조 간부 상반기 워크숍이 열렸다.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 및 국내, 외 경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 송익현 공장장과 노조 간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노사간의 공장 이동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도 하였다.

안산 · 제 18회 환경의 날 표창 수상



6월 1일, 제 18회 환경의 날을 맞아 안산스마트 허브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세플러 안산 공장이 선정되어 우수기업 현판과 함께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을 통해 효율적인 약취 관리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아바지하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만들기에 기여하는 환경 관리 우수 기업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전주 · 창립 기념식



5월 31일, 구내식당에서 회사 창립기념 행사를 실시하였다. 20년 장기근속자 16명 및 10년 장기근속자 2명, 모범사원 6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모범사원은 사장상에 품질보증팀 이명호 부장, 열처리 생산1팀 김재민, 테이퍼/휠베어링 생산3팀 김동국 사원이 수상하였으며, 공장장상은 설비보전팀 이정주 주임,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김병훈, 공장운영실 홍용근 사원이 수상하였다.

전주 · 20년 장기근속 유럽/호주 여행



2013년도 20년 장기근속 유럽/호주 여행이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직원 16명의 가족을 포함한 총 33명이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루체른, 취리히 등지를 관광하고 돌아왔다.

전주 · 효도관광 실시



5월 8일, 138명의 직원 부모님을 모시고 안면도 툼립 축제 및 자연휴양림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부모님들은 구내식당에서 간단한 행사를 마치고 회사를 출발하여 안면도 툼립 축제와 자연휴양림을 관광했다.

전주 · 2/4분기 환경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6월 10일부터 3차례에 걸쳐 2/4분기 환경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갑을(甲乙)관계 사례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전주공장 환경안전보건 교육은 작업 전후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적으로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 · 봉사활동 실시

4월 20일, 공정기술팀과 전주물류센터 직원 및 가족 11명이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인 임마누엘 동산을 방문하여 집안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5월 11일에는 업무지원팀 직원 및 가족 8명이 조순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전주 · 특별후원금 성금 모금



전주공장 생산2팀에 근무하는 임흥균 사위의 아들이 3년 전부터 소아암 투병으로 병원치료 및 수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주공장 직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액, 회사출연기부금, 외주업체 후원금 총액 1500만 원을 6월 월례조회에서 전달하였다.

전주 · 노사간부 워크숍 실시



5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지리산 한화리조트에서 노사간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노사간부 34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팀별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 및 발표, 공장장과의 대화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공장 현안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격의없는 대화를 가진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주 · 밝은모습 담기 사진 공모전 개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주공장 밝은모습 담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경으로 팀별 또는 조별로 촬영한 단체사진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생산1팀 OD조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 하였으며, 우수상은 설비보전팀, 장려상에는 생산2팀 6속 조립조와 공정기술팀이 차지하였다.

전주 · 호국보훈의 달 행사

2013년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실시하였다. 국가 유공자 가족 사원의 사기제고 및 근로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보훈가족 4명에게 기념 선물을 지급하였다.

전주 · 보훈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식

6월 17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전주보훈지청에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전주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자녀 5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창원 · 장학금 전달식



5월 16일, 창원공장에서는 2013년 장학금 전달식 행사가 있었다. 올해는 창원공고를 포함한 공업계 고교 3곳과 창원초등학교 1곳의 70명의 학생들에게 총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나눔 장학사업'은 현재까지 720명, 8억6400만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지원하였다.

창원 · 품질 페스티벌(Quality Festival)

4월 8일, 창원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일본 지역 고객이 창원공장을 보는 시각, 내부 경쟁사의 위협과 우리의 자세, 현대 자동차 품질 5스타 운영 방안에 대한 소개 및 팀별 개선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번 품질 페스티벌을 통해 제품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에 대한 의식 고취 및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창원 · 간판(KANBAN) 워크숍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창원공장 1PU는 소형 딥 그룹 볼베어링 부문에 대하여 열처리 공정에서 케도연삭 공정까지를 대상으로 형번교체 원판(Changeover wheel) 및 간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상근 멤버로는 AP MOVE 팀 Mr. Lawrence, 1PU장, 열처리팀, 생산1팀, 공장운영실, 1PU MOVE 트레이너, 창원공장 MOVE 코디네이터가 참여하였고, 비상근 멤버로는 그룹 MOVE 책임자인 Gierhardt 박사, 3PU 생산관리팀, 구매팀 업체개발 품질파트, 직접자재 구매파트, 선삭 협력업체인 대명공업이 참여하였다.

창원 · 창원공장 전사원 한마음 산행



5월 3일, 창원공장은 노동조합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사원 한마음 산행'을 실시하였다. 창원공장은 매년 노동조합 창립일을 맞아 체육대회나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공장 1,2,3,6PU 및 연구소 직원 1,024명이 이번 산행에 참가하였고, 소속별로 창원을 대표하는 비음산, 정병산, 천주산의 등반코스를 산행한 후에 족구 및 식사를 함께 하였다. 창원공장 전사원이 모두 함께 단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연구소 · 개정된 PEP, Planisware5, SPEED RS1.1 & RS1.1b 트레이닝 및 워크숍 개최

Central Development AP 소속의 PM 스페셜리스트인 Mr. Teufel, Mr. Dietmar가 4월 8일부터 4월 11일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신입/전입사원에게 Revised PEP, Planisware5, SPEED RS1.1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매니저(PM) 등과 워크숍을 가짐으로써 셰플러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리 툴인 Planisware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소 · 연구소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6월 11일, 2013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32명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장의 강연을 듣고 성능시험기, XRD 등 시험장비에 대한 시연을 봄으로써 당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변화와 성장을 쫓던 것들이 다시 사람을 향합니다

처음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한 후 말로만 들었던 독일 연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비자가 붙은 여권을 손에 꼭 쥐고 일행들과 김포 공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는 길은 참 길었습니다.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아, 이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구나!' 였습니다. 80년대 당시 저에게는 그들의 주5일 근무라든가 여유 있는 생산 활동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던 모습이 참 낯설고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당시에는 우리는 이를 수 없는 꿈 같아 보였고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었으니까요.

그러던 우리가 20년 만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세월 속에 녹아 있는 인내와 열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작은 아쉬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사회 정책들과 IMF를 겪으면서 변해 버린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던 성장의 그늘에 아래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나를 좀 더 버리고 너를 좀 더 살리는 길을 살고 싶었지만 돌이켜 보면 지난 시절은 결국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전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초심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 세상이라도 움직일 것 같았던 그 패기가 때론 하루 하루의 일상에 지쳐서 툇니바퀴 속 부품처럼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참 열심히, 참 기쁘게 일했던 시간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열정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말입니다.



기술도 변합니다. 처음 연삭 설비를 다룰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고속 정밀 가공 설비는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 일본 설비가 아니면 독일 설비가 주종을 이루었고 국내 설비는 정도가 나오지 않는 설비로 인식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새로운 설비들과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접목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기술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다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비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고 열정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신문을 통해 그리고 뉴스를 통해 비춰지는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내 경제 상황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은 않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겪었던 침체 상황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만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없듯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묵묵히 생산 활동을 함께 해온 동료들이 모두 이 어려움의 파도를 극복하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청년시절은 지나갔지만 그때의 노고와 수고는 지금의 발전이라는 축복의 한 가운데 올려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을 넘어 기쁜 시간들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서울사무소

2013. 02

회계파트
김옥중 | 26일
부친회갑

2013. 03

감사팀
김래성 | 18일
장모상

T/M & 사시시스템영업1팀
김종익 | 24일
부친상

사업관리팀 안산
김현수 | 24일
친조부상

서울지점
박용구 | 26일
부친상

2013. 04

서부지점
김유미 | 05일
모친회갑

소비재산업센터
장후영 | 06일
본인결혼



영업전략팀
이화영 | 06일
본인결혼



풍력산업센터
이지형 | 14일
본인결혼



전주물류센터
김한식 | 18일
모친상

정보시스템팀
정혜경 | 27일
본인결혼



2013. 05

경영지원팀
권미영 | 10일
부친회갑

2013. 06

경영지원팀
이법진 | 03일
모친상

정보시스템팀
고봉문 | 09일
모친상

인사팀
이선희 | 15일
모친회갑



창원공장

2013. 04

선삭팀
백봉정 | 21일
장모회갑

볼베어링 생산2팀
김태웅 | 25일
조모상

설비보전2팀
김주환 | 27일
모친회갑

2013. 05

유틸리티운영팀
한광용 | 11일
자녀결혼

테이퍼롤러생산팀
김동주 | 11일
장인회갑

테이퍼롤러생산팀
최재규 | 11일
본인결혼

환경안전팀
원준길 | 11일
본인결혼



공정개선팀
선민수 | 17일
본인결혼



사업관리팀
이인정 | 27일
부친회갑

선삭팀
김기호 | 27일
장모상

2013. 06

설비보전1팀
김성현 | 07일
장인회갑

환경안전팀
추인혜 | 16일
본인결혼



안산공장

2013. 04

공장운영실
남형재 | 15일
조모상

2013. 05

생산팀
방지훈 | 19일
모친회갑

2013. 06

공정기술팀
김태현 | 07일
장인상

생산팀
석정원 | 07일
조모상

전주공장

2013. 04

생산2팀
김선주 | 19일
모친회갑

생산2팀
김준혁 | 22일
조모상

2013. 05

생산1팀
이중덕 | 08일
모친상

생산1팀
최한열 | 27일
모친상

생산2팀
한민수 | 29일
자녀출산



한민수 아들
(한승민)

2013. 06

생산2팀
김정수 | 03일
자녀출산



김정수 아들
(김주환)

설비보전팀
신민호 | 09일
자녀출산



신민호 아들
(신준서)

연구소

2013. 03

제품기술팀
김형원 | 12일
장모회갑

2013. 06

제품기술팀
손찬현 | 03일
장모상

제품기술팀
손찬현 | 07일
모친회갑

제품기술팀
한진우 | 07일
장모회갑

전용기개발팀
조태관 | 08일
장인회갑

〈세플러+원〉 전주공장 사보 주재기자를 소개합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알짜 소식통이 되겠습니다

2013년 사보의 개편과 발맞춰
신임 사보 주재기자로 선발된
새로운 얼굴이 독자 여러분에게
힐찬 각오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보다 알차고 빠르게 전달할
사보 주재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전주공장 업무지원팀 이중택 부장

평소에 활동적인 성격으로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 업무 이외에도 사내 산악회 및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곳에서 활동해 오면서 많은 선배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친분을 적극 활용하여 사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별'이 되어 전 사원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담아내고, 사보를 통해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공장 업무지원팀 백수진 사원

그동안 노동조합 사무장이라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회계 등)와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보 주재기자 또한 현장에서 맘 흘리며 고생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제격이라는 생각에 주재기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보에서 현장에서 정말 맘 흘리며 고생하는 조합원들의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웠는데, 임원 사원 전문직 사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사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주 노동조합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울타리'라는 노보가 발행이 되는데, 그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보 기자가 되었다는 게 죄송합니다. '한울타리' 노보와 '세플러+원' 사보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